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 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**2014년 9월 16일(화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 최철호 과장(043-870-5560), 강영식 연구사(043-870-5563)
국제표준과 정기원 과장(043-870-5350), 김창용 연구사(043-870-5353)

# 브라질 수출 쉬워진다! 현지에서 인증획득 서비스 받을 수 있다.

**- 한-브라질 표준·인증협력센터 개소 -**

**- 브라질 국제표준화기구(ISO) 총회에서 2015년 국제표준화기구(ISO) 서울총회 홍보 -**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기술규제, 인증획득 절차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, 한-브라질 표준인증 협력센터를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(INMETRO*) 안에 개설했다.(9. 11.)

○ 한-브라질 표준인증 협력센터에 우리 측 전문가(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** 소속 1명)를 파견했다.

* 국립계량품질기술원(INMETRO: 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, Quality and Technology): 세계무역기구(WTO)/기술규제(TBT) 공식 질의처, 교정·시험·검사·인증기관 인정 등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브라질 정부기관

**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: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, 인증표준콜센터(1381)을 운영하고 있는 시험인증기관으로, 수출 국가별·품목별 인증제도 및 취득절차 등의 안내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

○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12위 수출국('13년, 한국무역협회)이며, 브라질·러시아·인도·중국·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국 에서 무역기술장벽(TBT*)통보가 가장 많은 국가(중국제외)로,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, 휴대폰, 가전 등에 대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.

* TBT(Technical Barriers to Trade, 무역기술장벽): 기술기준, 표준,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형성되는 것

** '13년 주요교역국 무역기술장벽(TBT) 통보현황(건) : 미국(103), 유럽연합(EU)(93), 중국(88), 브라질(50), 한국(44)

-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브라질 강제인증에 대한 정보부족과 복잡한 인증절차 등 브라질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, 한-브라질 표준인증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인증표준콜센터(1381)와 코트라 브라질 무역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현지 센터 개소식 함께, 한-브 양국의 표준·인증제도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를 위한 한-브 기술표준 공동워크숍도 개최했다.(9. 15.)

○ 워크숍은 국가기술표준원-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(INMETRO)의 표준·인증분야 협력 양해각서(MOU)('12년 체결)의 후속조치로, 국가기술표준원, 중소기업청, 한국표준협회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우리 기술표준 인프라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발표했다.

○ 다음 공동워크숍은 브라질의 기술표준인프라 등 인증·기술규제 관련 주제로 '15년도 상반기에 한국에서 열린다.

□ 또한 자동차 부품 등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브라질 인증을 신속·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, 우리 인증기관과 브라질 인증기관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○ 양국 시험기관간 업무협약(MOU)을 통해, 국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브라질 인증기관이 인정하고, 공장심사를 우리 시험기관이 대행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, 장기적으로 브라질 인증획득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했다.

** 전기기기·통신기기·생활용품 및 자동차 부품 등 인증 업무협약 체결(9.17):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- 브라질 인증협회(NCC), 팔콘바우어 품질연구원(IFBQ)

□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성시헌)은 브라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페루, 에콰도르 등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남미 지역으로 기술규제

대응체계를 확대·구축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한편, 성시헌 원장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제37차 국제표준화기구(ISO) 총회(9. 8. ~ 9. 12.)에 참석하여,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국제표준화기구(ISO) 서울총회를 홍보하고 세계 각국 대표를 정식으로 초청했다.

○ 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(ISO) 총회에 가입 이후 처음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, 내년 총회에서 자동차·조선·반도체 등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보고 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 강영식 연구사(☎043-870-5563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
INMETRO

< 참고 >

## ❑ ISO 국제표준화기구 현황

○ 공식명칭: 국제표준화기구(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for Organization)

○ 설립년도 : 1947년 발족

○ 회원국: 총 163개국(정회원 114개국, 준회원 45개국, 구독회원 4개국)

○ **우리나라는 ISO 이사국**으로 자국의 입장과 의견을 국제표준화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음

* ISO 이사회는 ISO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써, 미국, 독일, 일본, 영국, 프랑스, 중국, 러시아 등 20개국으로 구성

○ 우리나라는 ISO 회원국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15년 ISO 총회 유치(서울)를 확정하였음

* ISO 총회 개최지: '11(인도), '12(미국), '13(러시아), '14(브라질)

- 서울에서 ISO총회를 개최할 경우, 해외에서 개최되어 ISO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**중소기업에게는 아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**

## ❑ ISO 총회 유치 추진경과

○ '12년 총회시(미국 샌디에고) 서울 개최 협의('12.9월)

○ '13년 총회에서 공식 유치 확정('13년 상반기)

## ❑ 국제표준 현황

○ ISO·IEC·ITU의 3대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의견반영

- 우리나라는 그간 적극적인 국제표준화활동으로, 아국 의견반영에 핵심적인 임원인 **간사(secretary) 수임 순위**가 **ISO 세계 10위, IEC 세계 8위**

< ISO·IEC 임원 현황, '14.8월 기준 >

| 구 분 | 국제의장 | 국제간사 | 컨비너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**계** | **16명** | **25명** | **107명** | **149명** |
| ISO | 15명 | 21명 | 81명 | 117명 |
| IEC | 1명 | 4명 | 26명 | 32명 |